+

삼성전자, AI데이터 필수업체 '獨 플랙트' 광주 공장 추진

최근 인수 유럽 최대 공조기기 전문 공조분야 표시장 전진기지 역할 기대 부지 관련 광주공장 "결정된 바 없어"

삼성전자가 최근 인수한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 '독일 플랙트그룹'의 광주 공장 건립을 추진 하고 있어 최종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전이 가시화되면 광주는 AI데이터산업에 열 냉각 솔루션이 필수적인 공조 분야의 아시아 시장에서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삼성전자 광주공장에 따르면 독일 공조 기기 업체인 플랙트기업의 광주 공장 생산라인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전날 삼성이 발표한 국내 5년간 450조원 투자안 중일부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 투자 분야에서 이 번달 초 인수한 플랙트의 한국 진출을 본격화하 기 위해 광주시에 생산라인을 검토중이며, 인력 확충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플랙트그룹의 광주 공장 설립 의미 와 파급효과 등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플랙트는 100년 이상의 역사와 기술력을 바탕 으로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데이터센 터, 대형 상업시설, 병원 등을 위한 중앙공조, 정

밀 냉각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글로벌 10여 개의 생산거점과 유럽·미주·중동 ·아시아까지 폭넓은 판매·서비스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터널·선박·방산용 환기, 화재 안전 시스템을 제공하는 '우즈(Woods)' ▲공기 조화·유동 솔루션을 담당하는 '셈코(SEMCO) ▲자동화 기반 빌딩 제어 전문 회사 'SE-Elektr onic' 등의 자회사도 운영하고 있다.

플랙트는 글로벌 선두 데이터센터 기업들과 협업해 공기냉각·액체냉각을 아우르는 AI 데이 터센터용 장비와 솔루션을 개발, 공급하고 있다. 글로벌 초대형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인 '스 타게이트'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번 인수로 삼성전자는 기존에 강점을 가진 개별공조 중심의 솔루션에서 각종 산업 대형 건 물용 솔루션 및 고성장하는 데이터센터를 대상 으로 하는 중앙공조 시장으로 본격 진출해 B2B 사업 경쟁력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에서 최근 AI 컴퓨팅, 클라우드, 통 신 등 급격한 수요에 맞춰 고성장이 예측되는 대 규모(Hyperscale) 데이터센터 공조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플랙트의 차별화된 제품과 브 랜드 경쟁력을 활용해 차세대 데이터센터 분야 에서 최상위 공급업체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이번 광주 공장 설립은 단순한 생산을 넘어선 AI 데이터센터용 고부가가치 시스템을 생산하

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핵심 거점이 될 가능성 이 높다. 따라서 R&D, 고도화된 엔지니어링, 복 잡한 품질 관리 이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 여고용창출효과가기대된다.

실제 대기업의 제조 공장 투자가 지역에 미치 는 고용 파급 효과는 일반적으로 직접 고용의 2 -3배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투자 효과는 광주가 목표로 하는 AI 산업 기반의 첨단 제조 산업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공장 부지와 관련, 삼성전자 광주공장 관 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본사가 세부지 침을 곧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채만기자

산인공 전남지사, 지역사회와 함께 봉사활동 펼쳐

누전·방충망 등 생활안전 시설 점검·교체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는 17일 "최근 순천제일대학교, 순천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순천시 송광면 이읍마을을 방문해 지역과 상생 하는 사회공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

이번 봉사활동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순천

제일대학교 재학생과 교직원, 순천시자원봉사 센터 봉사원, 전남미용사회 순천지부, 전남동부 지역기능장협의회,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전남지역협의체 등 총 80명이 참여해 지역사회 에 따뜻한 손길을 전했다.

참여자들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LE D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누전 점검, 방충망 교체, 가스 누출 검사 등 생활안전 중심의 다양한 활동

또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근육 마사 지 및 부상 방지 테이핑을 진행하고 정서적 안정 을 돕기 위해 네일아트 및 손 마사지 봉사활동도 함께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공단과 대학생, 지역 봉사자 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가치를 실천 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박태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장은 "지 역사회와 함께하는 이러한 활동은 공단이 국민



과 함께 성장하는 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한 밑거 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대학 및 기관과 협력

해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 /안태호기자

Panasonic



파나소닉 안마의자 한가위 EVENT

REAL PRO MAN1 최대 250만원 혜택!









파나소닉 안마이자 전 제품 사은행사 진행중!

















+

파나소닉프라자 파나소닉 금호월드점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062)350-8397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 1층 139호

광주 제조업 산업별 편중 우려

자동차·트레일러, 지역 생산액 약 45% 전통산업 공백 대체 신산업 성장 미미

수년째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광주지역 제조업의 산업별 편중 현상이 우려된다는 주장 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지원의 속도 를 높이고 침체된 전통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 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경영자총협회는 17일 "광주 제조업이 특 정 산업(자동차)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는 반 면, 과거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전자·가 전 등 전통 주력 산업의 위축 속도가 빨라지면서 산업구조의 불균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

이는 광주경총이 지역 광업·제조업 관련 통계 청 최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광주시 제조업 사업체 수는 약 5천500여개, 종 사자수는약13만명수준으로전년대비소폭증 가했다. 하지만 지역 제조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부가가치'는 약 21조원 수준으로, 수 년째 20조원 초반대에서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광주경총은 설명했다.

이는 타 광역시의 제조업 부가가치가 성장세 를 이어가는 것과 대비되는 현상으로 광주 제조 업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산업별 편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광주 전체 제 조업 생산액의 약 45%, 부가가치의 약 40% 이상 을 차지하며 사실상 지역 제조업 경제를 홀로 견

인하고 있다.

완성차 업계의 실적에 따라 광주 전체 경제가 좌우되는 취약한 구조를 의미하며 최근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변화(전기차 전환 지연, 수요 둔 화 등)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 했다.

한때 자동차와 함께 광주 경제를 이끌었던 '전 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가전 등) 부문은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생산 액 모두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에서 이들 전통 산업의 빈자리를 메울 신성장 산 업의 성과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인공지능(A I)'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아직 제조업 전체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 기존 산업의 쇠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광주경총 양진석 회장은 "미래차 전환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며 "내연기관 부품 업체들이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차 부품 기업으 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R&D지원, 설비 투 자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금융혜택이 필 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신산업이 제조업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제거하고 AI기반 자율 주행,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등이 실제 공장에 적 용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위축되는 전통 주력 산업의 연착 륙을 지원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전환을 모 색하는 기업에 컨설팅 및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 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채만기자

광주은행 제21대 노조위원장 박만 후보 당선

광주은행 노동조합은 제21대 노동조합위원장 에 박만 후보가 당선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2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 결과, 박만 후보가 54.1%(519표)의 득표율로 당 선됐다.

앞으로 박만 위원장은 홍도현·정이연 부위원 장, 백유진 사무국장과 함께 내년 1월부터 3년간 노동조합을 이끌게 된다. 〈사진〉

주요 공약으로는 ▲지역인재 채용 대폭 확대 ▲지주사명 변경을 통한 계열사 통합 이미지 제 고 ▲출산 장려를 위한 남직원 육아휴직 활성화 및 보육수당 지급 ▲과당경쟁 완화를 위한 KPI 절대평가 도입 등이 제시됐다.

박만 당선자는 "광주은행이 지방은행으로서 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독자경영 기반을 강화하



는 데 노동조합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조합원 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조합 이 되겠다. 조합원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 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임채만기자